

“연기할 때 꼭 살을 빼야 하나요”

조진웅, 영화 '해빙' 위해 18kg이나 감량... 예민한 내시경 전문 내과 의사 '승훈' 역할

“제 말이 그 말이예요. 연기하려면 꼭 살을 빼야 하나요. 안 빼면 안 되나요. 흥금 보는 평생 저렇게 하던데...”

영화 '해빙'에서 예민한 내시경 전문 내과 의사 '승훈' 역할을 맡아 연기한 배우 조진웅은 이렇게 말했다.

그 자신도 이번 영화를 위해 18kg이나 감량한 터였다.

그러면서도 체중 감량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배우의 심정을 곱하히 털어놨다.

그는 “그래도 체중 감량이 연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며 “자신감이 없다보니 이렇게 해서라도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살을 빼게 된다고 했다.

“감독님과 얘기할 때 ‘살을 안 빼도 될 것 같다고 하면 곧바로 네,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지만 결국 살을 빼는 것이 그 캐릭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기 어렵죠. 하지만 살을 찌었다 뺐다 하면 심장이 안 좋아진대요. 진짜로요.”

서울 팔판동 인근 한 카페에서 조진웅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해빙’에 대해 ‘이 아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깊은 애착을 드러냈다.

‘해빙’은 봄이면 강에서 시신이 떠오른다는 내용을 소재로 수면내시경 전문의가 살인사건을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심리스릴러 영화다.

조진웅은 극도로 예민해진 인물을 연기해야 하는 탓에 쉽지 않은 작품이었음을 털어놨다.

“작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내가 왜 한다고 했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하지만 막상 연기할 때는 엄청 재밌었어요. 어느 지점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후 인물이 한 꺼풀을 벗게 되고 난 뒤에 작업할 때는 신명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두 번 하라고 하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의 연기 내공이 들어간 극 후반부의 취조실 장면은 연극적 분위기를 한껏 높인 연기를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운 장면을 꼽으라니 “땀 좀 다 떨어볼까요?”라고 반문하면서 겸손해했다.

“작업자로서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죠. 아쉬움은 남지만 개봉 앞두고 시사회 할 때에는 심판대에 올라가있는 기분입니다. 신명나게 봉사치었는데.”

다작 배우가 힘들지 않는다는 물음에는 연기를 농사에 빗냈다.

그는 “어떤 선배님은 배우를 농사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씨 뿌리고 열매가 열리면 팔러 가야지 하면 팔러가고, 서로 ‘많이 팔았어?’ 하고 묻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연사람한테는 ‘재는 하는 것마다 잘돼’ 그러면서 부러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게 힘들면 그만뒀어요. 사실 몇 년 안 남긴 한 것 같은데, 어떤 후배가



“평생 연기하겠다고 하면 ‘평생한다고’라고 하지만 그만두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덧붙였다.

극 중 정육점에 쌓인 고기와 내장을 뒤집어쓰는 장면 탓에 고기가 싫어지지 않았느냐는 물음이 나오자 “고기보다는 ‘술’을 내세우며 술 예찬론을 폈다. “소고기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야 두 점, 세 점이 예요. 사실 제 음식은 안주에 의존하는데 육류보다는 국물 채소가 좋죠. 안주 얘기

좀 해 볼까요?” 술은 ‘자주, 그리고 많이’ 먹는 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애주가들이 그렇듯이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 모두 가슴 속에 태양이 하나씩 있다며 “짜주 500cc 한 잔씩만 하자고 해도 얘기하다 보면 ‘그래? 그럼 술 더 가져와봐’ 하면서 화두를 나누게 된다”고 했다.

내시경이 필요 없을 것처럼 건강해보이

지만 마음이 남은 나이인 만큼 본인도 내시경 검사는 꼬박꼬박 챙겨서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 영화에서 비밀을 듣는 내시경 전문의로 등장하는 탓에 ‘혹시 나도?’ 싶은 꺼림칙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는 말도 털어냈다.

“그래도 수면내시경 밖에 못해요. 마취 안하면 저는 검사 못 받아요. 주사 맞을 때도 마취하고 싶은데요. 하하”

/뉴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후원의 집' 윈-윈 전략 성공 공식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백승권)과 '후원의 집'의 윈-윈 전략이 성공 공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년째를 맞는 '후원의 집'은 도내 소상공인과 함께 축구단의 일선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시행해 왔다.

올해 '후원의 집'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50여 곳이 확대되어 200여 곳에 이르며, 전주시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후원의 집'에 가입된 업체는 전북현대 홈경기 안내 플래카드와 포스터를 업소 내외에 부착하여 전북현대 홍보를 위해 일선에 선다. 선정된 업체는 시즌권과 홈경기 할인권 등 관련 지원품을 통해 고객 유지와 매출 향상 효과를 얻는다.

축구단과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시너지 효과에 전라북도에서도 동참했다.

지난 1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전주시 나들가게의 15개 점포에 '후원의 집' 가입비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전북은 향후에도 축구의 봄 조성과 지역경제를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후원의 집'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은 오는 3월 5일 오후 3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 2017 K리그 클래식 홈 개막전을 갖는다.

/김민근기자

한국음악 대표 뮤지션들, 美·英서 K팝 쇼케이스

드렁큰타이거·레드벨벳·윤미래·노브레인·MC스나이퍼 등 각 분야에서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케이팝 쇼케이스 무대에 오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2017 K-Pop 해외 쇼케이스' 참가 뮤지션 기자회견을 열어, K-Pop 나이트 아트를 소개하고 참가 뮤지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뮤직 페스티벌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 SXSW)와 오는 5월 영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The Great Escape, TGE)에서 열릴 계획이다. SXSW에는 레드벨벳·효린·캘러시악스프레스·드렁큰타이거·윤미래·노브레인·빅포니가, TGE에는 솔탄·오브 더 디스코·뷰렛·MC스나이퍼·모노톤즈가 참가한다.

이현주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2본부장은 “이번 쇼케이스가 케이팝의 세계 음악 시장 진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SXSW는 이달 13~19일 미국 텍사스에서, TGE는 오는 5월18~20일 영국 브라이튼에서 열린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